

“ 복음을 먼저 채웁시다 ”

인생을 살다 보면 채우고 싶은 것들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아름다운 집과 멋진 자동차,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 등 세상에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라고 손짓합니다.

이뿐 아니라 부족한 것들도 눈에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백 배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람들,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가진 사람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겐 안정적인 가정도 없었고 유대인에게 멸시당하는 이방인 신시에, 심지어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결핍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다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진짜 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텅 빈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줄 남편이 필요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착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복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무려 열세 번의 대화를 통해 여섯 번의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중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쓸데없는 말로 여겨 무시하고 떠났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또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떠났다면 텅 빈 마음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채웠습니다. 채움을 통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 동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투자하는 시간을 채우고 복음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한 번? 두 번? 언제까지가 아니라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복음이 채워지고 그 채워짐으로 넘치게 됩니다.

2024년도 어떤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복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 나의,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길이며 복음이 차고 넘치는 한 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4 갑진년

설가정
례배



✠ 태장성결교회



묵상기도 다 함 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8장 다 함 께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4:13-14 인 도 자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설 교 “ 복음을 먼저 채웁시다 ” 인 도 자

찬 송 310장 다 함 께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흑 밤에 흑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기도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